

**남하빈 이력서**

시작하겠습니다 😎

저는 스스로를 ‘전등’, 그중에서도 ‘센서등’에 빗대어 표현하고 싶습니다.



어둑어둑한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면 빛을 밝혀주고,  
환한 낮에는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필요할 때 스위치를 통해 빛을 밝힐 수 있는 전등의 종류

---

**제게 **센서등**이란 이런 **존재**입니다!**

평소에는 정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**묵묵히** 할 일을 해 나아가지만,  
누군가 필요로 할 때는 **도움이 되는 사람**을 의미합니다.



## 기본정보 Basic Info



남하빈 | NAM HABEEN



2002.11.04



+82 10-7102-4350



nhb8152@naver.com

## 학력 Education



창덕여자중학교 졸업 (2019.01)



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뉴미디어소프트웨어과 졸업 (2021.01)

## 경력 Work Experience



주경야독 E-biz사업부 개발팀 (2020.11 – 2022.01)



컴퓨존 전산부 전산팀 (2022.02 – 2023.09)


목표가 주어지면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 
통해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  
회사의 성장은 곧 나의 성장이라는  
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

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

**저를 소개합니다.**

나 또한 내가 만들어 나아가는 서비스의 유저임을  
잊지 않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사람  
한배를 타고 나아가는 구성원들과  
잘 소통하고 신뢰하며 목적지에  
도달할 수 있는 사람



A woman with dark hair tied back, wearing sunglasses and a white long-sleeved top, stands in the foreground. Behind her is a large, multi-tiered golden stupa with intricate carvings. The scene is set outdoors with greenery and a clear sky.

# 퇴사 후 개발이 더 좋아졌어요.

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, 기억에 남는 것은 희로애락이 가득했던 지난 약 3년간의 회사 생활이기도 했지만 그것 말고 내 인생의 일부로 남길 수 있는 다른게 없을 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.

맨날 책상 아래 제일 구석진 곳에 두었던 수첩 속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다른 나라에서 잠시라도 살아보기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. 어찌 보면 정말 무모했습니다. 좋은 분들과 함께 했던 행복한 직장을 그만두고 버킷리스트를 이루러 떠난다는 얘기는 어쩌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.

3개월간 한국을 떠날 계획을 세우며, 문득 이 소중한 기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3개월을 평평 놀기만 하기엔 너무 가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PM 직무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가 가는 국가(태국)의 오픈마켓 입점 및 자사물 담당 PM 단기 재택근무 일자리를 알아본 후 해당 직무에 잠시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.

해당 직무를 경험하며 개발자로서의 삶이 더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, 제게도 확신이 선 만큼 앞으로 뻐개!(뻐 속까지 개발자)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 나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.

# 문제해결기술서 및 포트폴리오, 프로젝트 수행기술서는 제가 고등학생 때 작업한 내용물 입니다! (약 3년 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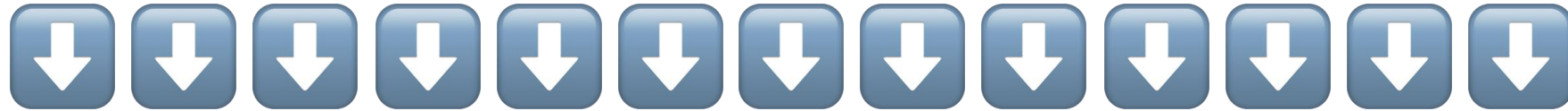
※ 2023년 9월 퇴사 직장 '컴퓨존' 에 대한 정보는 퇴사시 서명한 보안서약서로 인해  
노출 제한된 것들이 많아 경력 기술서 내에 표 한장으로 축약하여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.

작업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, 따로 질문 주시면 정리 가능 범위 내에서 정리한 뒤 회신 드리겠습니다!

**혹여나**

**좀 더 자세히 궁금하실까봐**

**지난 시간들을 간단히 요약하자면!**



[https://namhabeen.github.io/resume\\_online/](https://namhabeen.github.io/resume_online/)



**감사‘하빈’다.**